

나의 장애감수성은?

평소 쓰는 말을 통해 알아볼까요?

OX퀴즈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친구를 뜻하는 장애 ‘우’라는 표현은 모든 장애인을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친구’로 지칭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자
장애우**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장애인을 비정상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탕이 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반인
정상인**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장애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장애는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

‘지적장애’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애유형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지체 3급
·
지능장애**

잠깐! 생각해봅시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거 공보물을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됩니다.

장애를 극복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장애인을 남에게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복지서비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배려는 '인권'의 언어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입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 바꾸는 작은 힘!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바꾸는 큰 힘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